

# KIA, 내년시즌 전력 크기? 양현종이 키를 쥐고 있다

31경기 등판...성적 11승10패·평균자책점 4.70

메이저리그행 여부 새해 초 결정될 것으로 보여

KIA 타이거즈는 2021 시즌 전력은 어떻게 될까?

에이스 양현종(32)의 메이저리그행 여부에 달려있다해도 과언이 아니다. 양현종이 있는 것과 없는 것은 하늘과 땅의 차이다. 양현종의 꿈을 지지하면 서로 빈자리를 메우지 못하는 점도 크게 우려하고 있다.

양현종은 올해 다소 구위가 떨어졌다고 하지만 31경기에 등판했다. 172%이닝을 소화했다. 경기당 6이닝이 조금 못미친다. 성적은 11승10패, 평균자책점 4.70을 기록했다.

양현종에 대한 메이저리그 팀들의 관심이 크지 않아 보인다.

현직 언론에서는 주로 김하성 관련 뉴스들이 나오고 있다. 나성범도 가끔 등장하지만 양현종은 거의 거론되지 않고 있다.

아무래도 올해 성적에 이유가 있다. KBO리그를 대표하는 좌완으로 활약한 만큼 선발투수로 활용할 가치는 인정했다. 선발투수의 꾸준함과 안정성을 평가하면서도 나이와 구위의 하락세도 지적했다.

현직 언론은 1월 초에 메이저리그

이적시장이 활성화 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양현종의 메이저리그행 여부도 새해 초에 결정될 것으로 보인다.

KIA는 1월 20일까지 기다려달라는 양현종의 부탁을 받았다.

그때까지 메이저리그 입단이 안된다면 유턴하겠다는 말이었다. 2월 스프링캠프를 준비하는 마감시한으로 보는 것 같다. KIA는 유턴 가능성이 생겼다는 점에서 더 더욱 촉각을 곤두세울 수밖에 없다.

그만큼 KIA에게는 양현종의 공백을 메울만한 대안은 부재하다. 올해 풀타임으로 활약한 임기영과 이민우의 성장, 신예 김현수의 도약, 군복무를 마치고 돌아온 김유신과 신인 이의리의 활약에 기대를 걸고 있다. 젊은 투수들에게는 분명한 기회의 문이 열린다.

아울러 KIA는 재계약한 애런 브룩스와 원투펀치를 이룬만한 새로운 외인투수를 모색하고 있다. 브룩스급을 원하지만 영업하더라도 시즌의 뚜껑을 열어보아야 한다. 아니면, 가뭄을 그대로 재계약할 수도 있다. 그럼에도 31경기, 평균 6이닝을 소화한 양현종의 공백은 채워지지 힘들다.

양현종의 공백은 고스란히 다른 선발진과 불펜진에 과부하를 안겨줄 수밖에 없다.

144경기 대장정 과정에서 연쇄 반응을 일으켜 마운드에 크게 약화된 가능성도 크다. 양현종의 메이저리그 추진을 바라보는 KIA 구단이나 맷 윌리엄스 감독의 속내가 편치 않은 이유이다.

김미희기자



## “토론토 변화의 전환점은 류현진 영입”

류현진의 영입을 빼고 토론토 블루제이스의 2020시즌 성공을 논하기 어렵다.

현직 매체들의 시선도 마찬가지였다.

캐나다 토론토 스타는 27일(한국 시간) 토론토의 2020시즌을 돌아보면서 “타닝 포인트는 작년 12월 말이었다”고 언급했다.

2019년 12월은 토론토가 류현진을 데려온 시점이다.

자유계약선수(FA) 자격을 얻은 류현진은 LA 다저스를 떠나 토론토와 4년 8000만 달러에 계약을 체결했다.

이적 첫 해 류현진은 몸값 이상을 해냈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여파로 60경기 미니 시즌에서 류현진은 12경기에 등판해 5승2패 평균자책점 2.69를 찍었다.

확실한 에이스의 등장으로 전력을 끌어올린 토론토는 4년 만에 포스트시즌 무대를 밟았다.

토론토 스타는 “1년 전 시즌을 끝내기 위해 21명의 선발 투수가 필요했던 토론토였지만, 류현진의 활약이 이들의 투수진을 확 바꿨다”고 칭찬했다.

이 매체는 또 “류현진과 4년 8000만 달러짜리 계약을 맺은 것은 젊은 내야진을 구축하기 위한 첫 걸음이었다”면서 결과적으로 과감한 투자가 성공을 거뒀다고 평가했다.

류현진으로 재미를 톡톡히 본 토론토는 올해 FA 시장에서도 “잡은 선수는 잡겠다”는 입장이다. 류현진의 토론토에 가져온 변화는 아직 끝나지 않았다.

한편 또 다른 매체인 제이스 저널은 “토론토가 매우 성공적인 시



즌을 보냈지만 2021시즌에도 경쟁을 벌이기 위해선 이번 오프 시즌에 변화를 보여줘야 할 것”이라면서 세 가지를 강조했다.

그 중 하나로 우수한 선발투수 1~2명을 추가해야 한다고 역설한 제이스 저널은 트레버 바우어, 제임스 팩스턴을 후보로 거론했다.

뉴시스

## ‘유현준 21점’ 선두 KCC, 6연승 전 구단 상대 승리

현대모비스, DB에 18점차 완승...5할 승률 복귀

프로농구 전주 KCC가 6연승을 달리며 전 구단 상대 승리를 신고했다.

KCC는 26일 창원실내체육관에서 벌어진 2020~2021 현대모비스 프로농구 창원 LG와의 경기에서 유현준의 승부처 활약을 앞세워 90:72로 승리했다.

6연승을 달린 KCC(17승8패)는 2위 안양 KGC인삼공사(14승9패)와의 승차를 2경기로 벌렸다.

또 인삼공사에 이어 시즌 두 번째로 전 구단 상대 승리를 신고했다.

가드인 유현준(21점 5어시스트), 김지완(17점)이 안정적인 운영과 득점을 책임지며 승리의 중심에 섰다.

특히 유현준은 4쿼터 막판 승부처에서 자유투와 돌파로 연속 4점을 올렸다. 21점은 프로 데뷔 후, 자신의 한 경기 최다 득점이다.

LG(9승15패)는 4연패에 빠지며 10승 고지에 오르는데 실패했다.

핵심 외국인선수 캐디 라랜이 발가락 부상으로 이탈하면서 힘을 쓰지 못했다. 라랜은 24일 인천 전자랜드전에서 다쳤다.

회복까지 최대 4주가 걸릴 것으로 보인다. 강병현이 왼 손등 부상으로 8주 진단을 받는데 이어 악재가 겹쳤다.

마지막까지 추격했지만 벌어진 차이를 좁히기에는 역부족이었다. 김시래(24점)와 리온 윌리엄스(17점 20리바운드)가 분전했다.

KCC는 4쿼터 종료 2분여를 남기고 82-77, 5점차까지 추격을 허용했지만 유현준의 자유투로 급한 불을 끄

다. 유현준은 1분13초 전에도 돌파로 득점을 기록하며 LG에 찬물을 끼얹었다.

오리온은 고양체육관에서 벌어진 전자랜드와의 경기에서 제프 위디와 이대성을 앞세워 68:63으로 승리했다.

14승(10패)째를 신고한 오리온은 2위 인삼공사와의 승차를 반 경기로 좁히며 선두권 추격에 힘을 보탤 예정이다.

전자랜드(12승12패)는 지난 24일 LG전 17점차 대승(89-72)의 상승세를 이어가는데 실패했다. 공동 5위로 내려갔다.

오리온의 센터 위디(11점 13리바운드)는 승부처였던 4쿼터에서 소중한 공격 리바운드와 득점, 어시스트로 제몫을 했다.

이대성은 10점 10어시스트 7리바운드로 트리플더블급 활약을 펼쳤다. 턴오버 7개가 아쉬움을 남겼다. 이승현(10점 10리바운드)도 지원했다.

전자랜드는 헨리 심스(21점 15리바운드)와 이대현(15점 8리바운드)이 분전했으나 슛 감각이 좋았던 슈터 전현우(8점)가 발목 부상으로 빠지면서 공격 밸런스가 무너졌다.

오리온은 4쿼터 승부처에서 이승현의 일대일 공격을 주 옵션으로 활용했다.

강을준 감독이 리바운드의 중요성을 강조한 가운데 62-59로 불안하게 앞선 4쿼터 종료 3분여를 남기고 위디가 공격 리바운드에 이은 골밑슛으로 힘을 얻었다.

해결사는 이대성이었다. 64-61로



프로농구 전주 KCC 유현준 (사진 = KBL 제공)

앞선 4쿼터 종료 1분47초 전에 전자랜드의 추격에 찬물을 끼얹는 3점슛을 성공했다. 이대성의 오픈 기회를 보고 패스한 위디의 어시스트도 돋보였다.

울산 현대모비스는 최하위 원주 DB에 82:64, 18점차 완승을 거뒀다.

현대모비스(12승12패)는 2연패에서 탈출하며 5할 승률에 복귀했다.

전자랜드, 부산 KT(11승11패)와 공동 5위다. 순 롱(29점 9리바운드)을 비롯해 함지훈(15점), 서명진(13점), 기승호(12점)가 고르게 활약했다.

DB는 저스틴 녹스(33점 11리바운드)가 고군분투했다. 3점슛과 필드골 성공률이 각각 15.4%, 33.3%로 극도의 부진을 보였다. 6승17패다.

김민정기자

## 미소천사 손흥민 “저보다 BTS가 유명하죠”



“한국인 중 가장 유명한 사람은 제가 아니라 BTS(방탄소년단)다. 엄청난 그룹이고, 나 역시 엄청난 팬이다.”

잉글랜드 프로축구 프리미어리그(EPL)에서 활약 중인 손흥민(토트넘)이 현지 언론과 인터뷰에서 팬들의 궁금증 해소에 나섰다.

영국 ‘스카이스포츠’는 26일(한국 시간) 크리스마스를 기념, 손흥민과의 인터뷰를 유튜브 채널에서 공개했다. 연신 활짝 웃는 표정으로 대답하는 게 인상적이었다.

손흥민은 “항상 웃는 얼굴로 행복해 보이는 이유”를 묻자 “좋아하는 축구를 이 곳에서 팀원들과 함께 하는 게 좋다. 왜 행복하지 않겠나. 늘 웃으려고 한다”며 활짝 웃었다.

한국에서 가장 유명한 사람으로 사는 것에 대해선 “내가 제일 유명한 사람이 아니라서 잘 모르겠다. 난 아니다. 한국에는 많은 유명한 사람들이 있다”며 “나보다 BTS가 더 유명하다. 엄청난 그룹이다. 나 역시 팬이다”고 답했다.

이어 “내가 프리미어리그에서 뛰고

있기 때문에 (제일 유명하다고) 생각할 것이다. 내 이름 뒤에는 항상 대한민국의 깃발이 있다. 자랑스럽다”고 했다.

그러면서 “팬들의 관심과 애정에 항상 기쁘고 감사하다. 팬들 없이는 아무것도 아니다. 팬들이 없었던 지난 9개월은 매우 그리웠다”며 “축구는 팬들을 위한 것이다. 나를 보기 위해 런던까지 오고, 나의 이름과 등번호가 새겨진 유니폼을 입은 걸 보면 정말 감사함을 느낀다. 엄청난 책임감을 가지고 있다. 잘해서 보답하고 싶다”고 했다.

토트넘은 14라운드까지 7승4무3패(승점 25)로 6위까지 밀려났다. 초반 선두에 자리하는 등 순조로운 흐름이었으나 최근 주춤했다.

손흥민은 우승 가능성에 대해 “불가능한 건 없다. 아직 초반이다”며 “긴 시즌을 치러야 한다. 집중해서 싸워야 한다. 마지막을 기대하고 있으며 (우승은) 우리의 목표”라며 “최대만 많이 승점 3점 경기를 하고 싶다”고 했다.

조세 무리뉴 감독에 대해선 “수많은 우승 트로피와 성공적인 커리어를 보

라. 세계 최고 감독 중 하나라고 생각한다”며 “(토트넘에 왔을 때) 믿을 수 없을 만큼 떨렸다. 그가 빅클럽을 이끄는 걸 보고 자랐다. 엄청난 기분이었다”고 했다.

그러면서 “토트넘에 많은 걸 줬다. 우리는 언제나 이기고 싶은 마음이었지만 감독님께서 무언가 다른 멘탈을 선수단에 심어줬다. 부스터 같은 것이다”고 했다.

손흥민은 이번 시즌 골을 넣은 후, 카메라로 촬영하는 세리머니를 펼쳐 화제를 모으고 있다. 그의 상징이 됐다.

이와 관련해서 “특별한 나만의 세리머니를 찾다가 좋은 기억을 간직하고 싶다는 의미로 이 세리머니를 찾았다”고 했다.

손흥민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여파로 지난 시즌 EPL이 중단됐을 때, 해병대에 입대해 기초군사훈련을 마쳤다. 2018 자카르타-팔렘방 아시안게임 금메달로 병역 혜택을 대상자다.

손흥민은 군생활에 대해 묻자 “좋은 경험이었다. 3주라는 짧은 시간이었지만 이런 경험은 없을 것이다. 새로운 사람들을 많이 만났다. 평생 잊지 못할 것이다”고 기억했다.

해리 케인과 찰떡궁합에 대해선 “모두 케인 덕분이다. 케인이 본인과 팀을 위해 보여주는 게 엄청나다”며 “함께 하는 것만으로 영광이다. 즐겁다. 함께 한 지 6년이 돼가고 있다. 서로를 잘 이해한다. 세계 최고 공격수 중 하나”라고 했다.

뉴시스

## ‘김정은 20점’ 우리은행, 삼성생명 꺾고 2연승

여자프로농구 아산 우리은행이 2연승을 달리며 선두 청주 KB국민은행과 승차를 반 경기로 좁혔다.

우리은행은 26일 아산이순신체육관에서 열린 KB국민은행 Liiv M 2020~2021 여자프로농구 용인 삼성생명전에서 베테랑 김정은과 박혜진을 앞세워 63:52로 승리했다.

2연승을 달린 우리은행(12승4패)은 선두 KB국민은행(12승3패)과의 승차를 반 경기로 좁혔다. 또 삼성생명을 상대로 이번 시즌 4라운드까지 전승을 거두며 강한 면모를 유지했다.

삼성생명(8승9패)은 2연패에 빠지며 4위로 밀려났다. 인천 신한은행(8승8패)이 3위다.

슈터 김정은이 3점슛 5개를 포



여자프로농구 아산 우리은행 김정은 (사진 = WKBL 제공)

함해 20점으로 양 팀 통틀어 가장 많은 점수를 올렸다. 박혜진은 15점 5어시스트로 경기를 조율했고, 김소니아가 13점 12리바운드를 지원했다.

서선욱기자

## “로하스 영입한 한신, 16년 만 우승 준비 끝”

멜 로하스 주니어(30)를 품은 한신 타이거즈가 우승 후보로 떠올랐다.

일본 스포츠초치는 “한신이 2020년 KBO리그 최우수선수(MVP) 로하스를 새 외국인 선수로 영입했다”며 “다들 알았더라, 천원인에 이어 로하스를 데려와 전력 강화를 한 한신은 16년 만의 우승 준비를 마쳤다”고 26일 전했다.

한신은 전날(25일) 로하스와 계약을 공식 발표했다. 계약 조건은 2년, 연봉 250만 달러로 추정된다.

로하스는 올해 142경기에서 타율 0.349, 47홈런 135타점 116득점을 올려 홈런·타점·득점·장타율(0.680) 부문에서 1위에 올랐다. 정규시즌 MVP도 로하스의 차지였다.

막강 전력을 구축한 만큼 이제는 정상도 바라볼 수 있다는 평가다.

뉴시스